

05 고등학교 고르기

교과 개설이 진로를 정합니다

그 학교에 그 과목이 있는가

- ◆ 이 자료는 **무료**입니다. 마음껏 나눠 주십시오.
- ◆ 법령과 학교가 발표한 요강만 정리했습니다. **예측하지 않습니다.**

CONTENTS

01 먼저 사실부터	2
02 무엇을 보나	3
03 무엇이 걸리나	4
04 그래서 무엇을	5
05 자주 묻는 것	6

무엇이 들어 있나

- ◆ 개설 과목이 **대입까지 걸리는 네 자리** — 수능 지정 · 탐구 지정 · 학종 서류 · 졸업 요건
- ◆ **편성표 읽는 법 다섯** — 최소 인원 기준까지
- ◆ 「열린다」와 「매년 열린다」는 **다릅니다** — 작년에 실제로 열렸는지 물어십시오
- ◆ 진로별로 없으면 곤란한 과목 · 공동교육과정이라는 길

01 · 먼저 사실부터

학교가 안 열면 못 듣습니다

「고교학점제라 과목을 골라 듣는다면서요.」

맞습니다. 다만 고를 수 있는 것은 그 학교가 연 과목뿐입니다. 전국에 선택 과목이 백 개 넘게 있어도, 내가 다니는 학교가 안 열면 못 듣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고르는 것이 과목을 고르는 것이 되었습니다.

왜 이게 대입까지 걸리는지부터 보시겠습니다.

어디서 걸리나	어떻게
수능 지정과목	최저 문장이 「수학(미적분/기하)」로 못 박은 자리가 272줄·15개 대학
탐구 지정	과탐만 지목한 자리가 525줄
학종 서류	어떤 과목을 골랐는지가 읽힙니다
졸업 요건	필수 이수를 채워야 졸업합니다

앞의 둘은 수능 응시 과목이라 학교 개설과 무관하게 고를 수 있습니다. 다만 학교에서 안 배운 과목을 수능으로 보는 것은 혼자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셋째가 학교 개설과 곧장 걸립니다. 학종은 생활기록부에 적힌 이수 과목을 봅니다. 학교가 안 연 과목은 생활기록부에 안 남습니다.

출처: 2027학년도 수시 모집요강 집계 및 학교알리미 공시 항목. 학종 평가에 대한 설명은 저희 판단입니다.

02 · 무엇을 보나

개설 과목표 읽는 법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표**를 보시면 됩니다. 학교알리미에 공시되고, 학교 홈페이지에도 대개 있습니다.

#	무엇을	왜
1	과학 과목이 어디까지 열리나	이공계·의약학을 볼 때 걸립니다
2	수학 과목이 어디까지	미적분·기하가 열리는가
3	제2외국어가 무엇이 있나	없는 학교가 많습니다
4	진로선택·융합선택의 폭	세특에 쓸 거리가 여기서 나옵니다
5	몇 명 이상이어야 여나	신청자가 적으면 폐강됩니다

5번이 잘 안 알려졌습니다. 편성표에 있어도 신청자가 적으면 안 열립니다. 최소 인원 기준이 있는 학교가 많습니다.

「열린다」와 「매년 열린다」는 다릅니다

편성표는 **올해 계획**입니다. 2학년 때 들으려던 과목이 **그해에 안 열릴** 수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실제로 열렸는지를** 물으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공동교육과정이라는 길도 있습니다

학교에 없는 과목을 **다른 학교나 온라인으로 듣는 제도**가 있습니다. 시도교육청이 운영합니다.

다만 **이동 시간과 저녁·주말 수업**이 붙는 경우가 있어 부담이 큼니다. **있다는 것만 알아 두시고, 기본은 학교 개설로 계산**하십시오.

출처: 학교알리미 교육과정 편성 공시 및 시도교육청 공동교육과정 안내. 운영 방식은 지역·학교마다 다릅니다.

03 · 무엇이 걸리나

진로별로 봐야 할 과목

진로에 따라 없으면 곤란한 과목이 다릅니다.

이쪽을 본다면	있어야 할 것	없으면
의약학· 이공계	과학 심화 과목 · 미적분·기하	지정과목에서 걸립니다
인문·사회	사회 선택 과목의 폭	세특 거리가 좁아집니다
경영·경제	경제 · 확률과통계	—
어문·국제	제2외국어	안 여는 학교가 많습니다
예체능	실기 관련 과목	학교 밖에서 해야 합니다

첫째 줄이 가장 크게 걸립니다. 앞서 본 대로 최저 문장이 수학을 미적분·기하로 못 박은 자리가 272줄입니다. 학교에서 미적분을 안 열면 혼자 해야 합니다.

다만 순서를 헷갈리지 마십시오

수능 응시 과목은 학교 개설과 무관합니다. 학교에서 안 배워도 수능으로는 볼 수 있습니다.

학교 개설이 걸리는 것은 내신과 생활기록부입니다. 그 과목을 이수한 기록이 남는가, 그리고 세특에 적힐 거리가 생기는가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수능만 보면 학교 개설이 덜 중요하고, 학종을 보면 크게 중요합니다.

출처: 2027학년도 수시 모집요강 집계. 진로별 과목 구분은 저희 판단이며 대학·학과마다 다릅니다.

04 · 그래서 무엇을

확인하는 차례와 점검표

차례	무엇을	언제
1	가려는 학교의 편성표 를 봅니다	학교 고를 때
2	내 진로에 필요한 과목이 있는지 봅니다	같이
3	실제로 열렸는지 물어봅니다	설명회에서
4	없으면 공동교육과정 을 알아봅니다	입학 뒤

3번을 꼭 하십시오. 편성표에 있는 것과 실제로 열린 것은 다릅니다. 「작년에 이 과목 열렸나요?」 한 마디면 됩니다.

교육과정 편성을 볼 때 확인하실 여덟 가지

- ☐ 학교 **교육과정 편성표** 를 직접 보았는가
- ☐ 과학 심화 과목 이 어디까지 열리는가
- ☐ 미적분·기하 가 열리는가
- ☐ 제2외국어 가 무엇이 있는가
- ☐ 진로선택·융합선택 의 폭이 넓은가
- ☐ 과목이 열리는 **최소 인원** 기준이 있는가
- ☐ 그 과목이 **작년에 실제로 열렸는지** 물어보았는가
- ☐ **공동교육과정** 으로 들을 수 있는지 알아보았는가

여섯째와 일곱째가 실제로 갈립니다. 편성표에 적혀 있어도 신청자가 적으면 안 열립니다. 그러면 계획했던 과목 대신 다른 것을 들어야 합니다.

입시CUBE가 드리는 말씀

저희에게 손해가 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에 없는 과목을 학원에서 배우는 것을 먼저 생각하지 마십시오.** 학원에서 배워도 **생활기록부에는 안 남습니다.** 학종을 보신다면 그건 큰 차이입니다. **먼저 학교에 개설을 요청해 보시고**(신청자가 모이면 여는 학교가 많습니다), **그다음에 공동교육과정**이고, 학원은 그다음입니다.

05 · 자주 묻는 것

교과 개설에 대해 자주 하시는 질문

Q. 작은 학교는 과목이 적나요?

대체로 그렇습니다. 학생이 적으면 최소 인원을 못 채워 안 열리는 과목이 생깁니다.

앞 편에서 본 것과 맞바꿈이 생기는 자리입니다. 작은 학교는 선생님이 학생을 안다는 이점이 있지만 고를 과목이 좁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진로가 뚜렷하고 그 과목이 필요하면 개설 폭이 넓은 학교가 낫고, 진로가 아직이고 세특이 중요하면 작은 학교의 이점이 큼니다.

그리고 작은 학교일수록 공동교육과정을 적극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도 함께 물어보십시오.

Q. 인기 없는 과목을 들으면 등급이 불리한가요?

상대평가 과목이라면 그럴 수 있습니다. 앞 편에서 본 대로 수강자가 열 명 안팎이면 1등급이 한 명입니다.

다만 모든 선택 과목이 상대평가는 아닙니다. 진로선택·융합선택 가운데 절대평가로 가는 자리가 있고, 일부는 석차등급을 아예 안 매깁니다.

그러니 물음은 「인기 있나 없나」가 아니라 「이 과목이 상대평가인가」입니다. 절대평가 과목이면 수강자가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학교 교육과정 안내에 과목별 평가 방식이 적혀 있습니다. 없으면 담당 선생님께 여쭙보십시오 — 이걸 학교가 아는 정보입니다.

한 줄로 남기면

고교학점제에서 학교를 고르는 것은 과목을 고르는 것입니다. 편성표를 보고, 작년에 실제로 열렸는지 물어보십시오.

이 자료는 2026년 8월 기준 공시 항목·요강 집계와 제도 안내를 정리한 것입니다. 개설 과목과 평가 방식은 학교·지역·연도마다 다르고 제도가 바뀌는 중입니다. 반드시 해당 학교와 교육청 안내를 확인하십시오.